

## 후원자 인터뷰

# 카페 로리엔 사장 정기영 권사님 커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어서 와~”

C채널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지하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밝은 조명의 카페를 볼 수 있다. 언젠가도 밝은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시는 카페 사장님은 3년째 C채널을 후원해주시는 평화교회 정기영 권사님이다. 카페 영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C채널 홍보를 맡아주셔서 이미 권사님의 지인들은 모두 씨채널 방송선교사라는 사실, 주변에 후원을 권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인터뷰를 통해 권사님의 삶, 신앙, 그리고 후원에 대한 속마음을 들어 보았다.



처음 인터뷰제를 드렸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보여드릴게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게 조금 부끄러웠어요. C채널이야 저랑 가까운 사이라서 1:1이면 쉽게 티 놓을 수 있지만 지면을 통해 많이 알려진다고 하니 조금 걱정이 되었거든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다보면 그 속에서 향기가 드러나잖아요. 그 모습이 보여지길 바라는데... 이 인터뷰가 선한 영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후원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사실 처음에는 C채널 전무님이 저희 카페에 와서 후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선교헌금이다 생각하고 후원 약속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방송선교사로서 복음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안부 문자도 보내주니까 고맙죠. 후원자를 꾸준히 생각해 주는거 같아요.



C채널의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무엇을 즐겨보세요?

출근할 때 주로 C채널을 시청해요. 오전 6시부터 카페 영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예전에는 '내 모습 이대로'를 많이 봤구요, 신앙간증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재미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끝까지는 못 봐요. 손님이 오시면 볼 수가 없으니까요. 아쉽죠.



지인분들께 방송 후원에 대해 권면해주시는데요, C채널의 어떤 점 때문인가요?

제 자신이 후원하면서 기쁘기 때문에 주변에도 권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 말씀씨가 좋아서 주변 분들이 후원에 많이 동참하는건 아니에요. 제가 권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후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마침 제가 권면하는 타이밍이 맞아서 기쁘게 후원하지 않음 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권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나요?

저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려움과 직면하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겠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8년째 투병중이에요. 6개월밖에 못산다고 했었는데 어느덧 8년을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예전에는 그 뜻을 몰랐어요. 마른 막대기. 그땐 교만했었죠. “하나님, 저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는 고백이 나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식하고 무지한데서 나오는 뻔뻔함과 교만함이 너무 났었던거 같아요. 이것들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려 놓아야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를 떠나서 살면 안 된다. 항상 너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기도 하면서 응답을 기다려라” 그런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배웠거든요.



삶에서(일하면서) 크리스천의 삶을 실천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전에는 카페에 찬양을 틀었어요. 손님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유행가하고 섞어서 틀었어요. 그런데 간혹 그걸 알아차리는 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불편하다고 표현한 분들도 몇 있어서 지금은 찬양을 못 틀고 있어요. 대신 손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엄마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손님들 중에 음료 하나 시켜놓고 두 명에서 나눠먹는 모습을 보면 그냥 제가 한 잔 더 만들어줘요. 그래야 맘이 편해요. 우리 자녀들하고 비슷한 또래의 손님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아들, 딸도 분명히 어디가서 저렇게 먹고 있을텐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보는 등의 모습을 통해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삶 속에서 은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 권사님의 vision은?

저는 선교에 마음이 있어요. 8년 전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그 때 만났던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시골 오지에 있는 마음에 갔었어요. 우리가 고기를 구워서 나누는데 그걸 더 먹고 싶든나를 쳐다보던 아이들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주워 훑을 털어 먹던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무절제한 성의식 때문에 성병에 걸린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마음에 담겨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조만간 공부를 마치거든요. 그때부터는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열방으로 나가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받았던 시련들을 통해 많이 내려놓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Thank you”

에스프레소를 처음 경험할 때의 떨림처럼 시작된 인터뷰는 커피의 쓴맛, 신맛을 지나서 단맛으로 마무리되었다. '인터뷰를 자주 미뤄 미안하다'며 샌드위치와 생과일주스를 손에 쥐어주신 권사님. 언제나 삶에서 겸손함과 섬김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